

分類規程(5)

白 麟



200 宗教

宗教라 함은 사람이 超人間的인 威力을 認定하고 이것에 對한 畏怖 또는 信賴의 情을 느끼고 도 犧牲을 받쳐 祈願禮拜하고 祭祀儀式을 行하고 義務의 念을 갖기 고서 그에 對하여 服從奉仕의 生活을 營爲할때 그 關係를 宗教라 稱한다 이것은 一面으로는 主觀的인 心的生活이고 他面으로는 客觀的인 社會現象으로서 나타난다. 이로 因하여 여러가지 心的 社會的 事實과 密接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眞實로 宗教가 되게 하는 特質 或은 宗教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認識하는 것은 容易치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古來로부터 學者의 見解도 一定치 않고 매우 多種多樣하다. 어제던 學的 美的 乃之 道德의 生活에서 다시 其他의 生活形式에서 區別된 特別 宗教的인 生活을 認定하여 이것을 學問的으로 觀察研究할때 宗教學으로서 成立된다.

1) 各宗教 宗派에 共通되는 主題의 哲學的인 考察은 宗教 哲學下에 分類하라 그러나 哲學的 考察의 例證으로서 取扱된 것은 哲學下에 分類해야 한다.

2) 特殊宗教 宗派의 哲學的考察은 그 宗教 宗派의 哲學 또는 教義下에 分類하라.

3) 特殊 宗教 宗派의 諸現象을 比較研究한 것은 宗教學下에 分類하라.

4) 宗祖의 傳記는 그 宗教 宗派의 歷

史와 같이 分類하라.

210 自然神學

自然神學은 基督教에 있어서의 啓示에 立却한 啓示神學에 對하는 말이다 即 基督教에서의 啓示와 함께, 自然 또는 理性에 依한 眞理를 神學의 資料로서 認定하는 것을 意味하며 “토마스·아퀴나스”의 神學에서는 神과 被造物과의 相間에 類似性을 認定하고 被造物에서 神을 認識하는 길을 肯定했다. 最近 “부룬나”가 啓示한 人間과 다추치는 結合點으로서 神의 像 Imago Dei의 殘存을 認定하는데 反하여 말드는 이를 否定하여 兩者間에 있어서 神學的 論爭이 버러지고 있다(岩波哲學辭典參照).

1) 神學上에서의 宇宙創造說은 213에 分類하고 宇宙論은 113에; 宇宙의 天文學的 考察은 523.1에; 地質的인 考察은 550에 各各 分類하라.

2) 宗教上의 象徵은 宗教下에 分類하고 宗教美術은 美術에 分類하라.

220 聖 書

聖經은 基督教의 聖典으로서 舊約과 新約의 二部로 되어있다. 本來 約이란 神이 人間에 對한 救援의 契約을 意味하고 舊約은 “모세”를 迺해서 “이스라엘” 百姓에게 주어진 契約이고 新約은 예수의 福音에 있어서 啓示된 救援을 가르킨다.

舊約聖書는 本來 舊約의 聖典이던 것

을 예수敎會가 이것의 應用한 것이다. 이것들이 著作年代는 其中에 收錄된 諸書에 따라 다르다 大概 舊約은 前八·九世紀까지 이고 新約은 後 一世紀 中葉부터 또는 그 後에 達한다고 한다. 그리고 聖經 만큼 原典이 重要視되는 古文書는 없으며 또한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翻譯된 것도 없다. 聖經의 翻譯은 直接된 것도 있고, 重譯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著名한 것은 直譯인 것이다.

- 1) 聖書文學은 220.88에 分類하라.
- 2) 聖書中에 나타난 特殊主題의 取扱은 220.8下에서 000—999와 같이 區分할 수 있다.
- 3) 聖書公會는 206에 分類하라.

예수敎

D.C에 있어서 宗教部門의 展開는 예수敎를 爲主로 한 것이기 때문에 他宗教에 對한 것을 分類하기에는 困難에 直面할 때가 많다. 그리고 230~289까지는 모다 예수敎를 위하여 마련된 分類記號이다.

- 1) 基督教社會主義는 335.7에 分類한다.
- 2) 宣敎는 266에 分類하고 宣敎師學校는 377.6에 分類하라.
- 3) 惡魔에 關한것은 235에 分類하고 魔術에 對하여 쓴 책은 133.4에 分類하라.
- 4) 讚頌歌 책은 245에 分類하고 聖歌라도 樂譜가 있는 것은 音樂下에 分類하라.
- 5) 宗教音樂은 783에 分類하라.

예수敎會 및 敎派

예수敎가 西紀 313년에 Constantine帝에 依하여 公認되기 前의 敎會를 原始敎會라 稱한다. 西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帝에 依하여 國敎로 成立된 以來 羅馬帝國의 行

政組織에 따라서 全國의 敎區를 다섯 區域으로 分割하였다. 即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타오기아, 예루살렘, 아렉산드리아의 五大敎區가 그것이다 最初에는 예루살렘敎會가 指導的인 位置에 있던 것이 漸次 首都인 로마의 敎會로 옮겨져 로마의 大司敎가 最高權威者로 되었다. 1052년에 이르러서는 東西카톨릭敎會가 完全히 分裂되었고 14, 15世紀 以後의 敎會는 하나의 社會機構化되어 버렸고, 16世紀에 들어와서 宗教改革으로 Protestant敎會가 成立되었고 “루터”를 이어서 “제네바”에서는 칼빈에 依해 宗教改革에 徹底한 形式을 取했다 이와같이 “제네바”에 있어서의 徹底한 宗教改革의 成功에 刺戟되어 “스칸디나비아” 半島 및 獨逸 和蘭 佛蘭西에도, 新改革運動이 展開되었다. 이 運動을 改革派의 運動이라 불리우고, 또 長老制度를 取한데서 長老派敎會라고도 불리운다. 英國에 있어서의 改革運動을 칼빈主義의 影響을 받아 非徹底性을 排擊하고 스코트란드의 長老派敎會가 中心이 되어 改革되었다. 그 後 “크롬웰”을 中心으로 해서 다시 徹底한 組合敎會가 생겨났다. 이 프로테스탄트 諸敎會는 아메리카 新大陸으로 건너가 各其 信條와 傳統을 달리는 많은 敎派로 갈려졌다.

- 1) 敎會建築은 726.5에 分類한다.
- 2) 基督教一般에 關한 것은 200에 分類하라.
- 3) 特殊敎會나 敎派의 敎義, 說敎, 傳道, 禮拜等에 關한 것은 그 敎會, 敎派아래 分類하라.
- 4) 敎義 歷史, 說敎法, 傳道 禮拜에 關한 包括的인 著述은 280에 分類한다.
- 5) 新敎派의 綜合的인 著述은 284에 分類하고 特定한 新敎敎會는 各己 그 敎會 敎派아래 分類한다.

290 예수교以外的 宗教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D.C의 宗教部門은 예수교 爲主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宗教를 分類하기에는 適當치 않은 點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分類記號의 配定에 있어서도 偏重되어 있으므로 他宗教를 細分하려면 그 記號가 상당히 곁어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교에 관한 것만은 極히 細分되어 있지만 他宗教에 있어서는 細目展開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낫은 계통이 團體나 學校는 모르지만 大部分의 圖書館이 基督教에 관한 圖書보다 오히려 經書나 佛敎에 관한 書籍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의 淺見으로는 293 만을 展開細分하는 것보다 오히려 D.C를 採用하는 圖書館에 있어서 共通의으로 適用할 수 있도록 200의 宗教部門全體에 손을대어 다시 按排함이 어떨까 生覺된다.

佛 敎

佛敎는 말할 것도 없지만 釋迦世尊의 自內證開顯의 宗教이며 그 敎說을 記錄한 것이 佛敎經典인 것이다. 그後 이에 다시 註釋等을 加하여 總集錄한 것이 所謂 大藏經 三藏 또는 一切經이라고도 하며 經, 律, 論의 三部의 叢書로 成立되어 있다. 經이라고 하는 것은 佛陀의 說法을 收錄한 것이고 律藏은 戒律에 관한 諸藏經으로서 佛道修行者의 生活 및 그 行動을 規律한 것이고 論藏은 嚴密히 말하면 佛陀의 敎說에 따라 佛弟子들이 解說祖述한 叢書群을 말한다. 이와같은 佛典은 時代의으로는 上下 2千年에 亘하며 地域의으로 말하면 印度 中央亞細亞 中國 韓國 日本에로 北傳된 것과 印度 버마 세이로 泰國等으로 南傳한 佛敎에 관한 모든 典籍을 網羅한 것

으로서 그 重要한 經典만 하여도 1萬2千卷에 1億語 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現在 우리나라나 日本에 傳하여 있는 藏經은 漢譯藏經에 依한 것이며 따라서 이 漢譯諸經典은 大藏經; 一切經이라는 大叢書에 總收銀되어 있으며 그 內容은 實로 莫大한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諸經典은 어떠한 組織下에 分類 按排되어 所謂 大藏經이라는 大叢書를 形成하고 있는가? 原來 經典은 三藏(Treepitaka)이라는 名稱으로서 印度에서 傳한 以來 經, 律, 論의 三藏으로 三大區分하는 것이 遙例이나 大乘佛敎가 興起한 後 中國에 있어서는 이를 大乘小乘으로 區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三藏으로 三分하고 다시 大小乘으로 二分하는 方法은 近來에 까지 嚴然히 諸經錄, 諸刻藏을 分類하는데 採用되어 온 藏經分類的 根本大綱인 것이다. 勿論 以外에 所謂 三藏中에 들지 않은 諸典籍 例컨대 그 後의 印度, 中國에서의 選述된 佛典等을 넣을 部門을 마련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附加的인 것이며 따라서 佛典으로서의 三藏의 權威는 어디까지나 保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中國에 있어서 藏經目録을 들어보면 道安, 僧祐 등이 編纂한 目錄, 僧紹의 經本目錄, 仁壽2년에 된 衆經錄, 開皇14년에 된 衆經錄, 大業年間의 內道場經目錄 그리고 開皇17년에 翻譯學士 費長房의 歷代三寶紀, 開元釋敎錄, 明代에 들어와 寂暉의 大明釋敎彙門標目, 智旭의 藏知律等이다. 그러나 이들 中에서도 가장 有名한 것은 開元釋敎錄의 分類法이며 開元釋敎錄은 大藏經編成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紙面關係上 開元釋敎錄의 分類를 例學할 수는 없으나 入藏錄에 依하여 그 大略을 살펴보면 全體를 菩薩三藏, 聲聞三藏, 聖賢傳記로 三分하여 菩薩 및 聲聞은 大乘과 小乘을 意味

하는 것으로서 三藏은 經律論이나 菩薩三藏은 다시 般若寶積, 大集, 華嚴, 涅槃의 五部로 분하고 그 외에 重譯 單譯의 門을 두었다. 論部는 釋經과 集經로 二分하고 聲聞三藏(小乘)에서는 經을 根本四阿含, 四阿含中の 別譯과 重譯 單譯의 各部分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聖賢傳記는 卽 三藏以外的 것을 모은 部門으로서 西域選述과 此土選述의 二門으로 區分하였다. 어찌던 이 開天錄은 오랫동안 後代의 諸經錄分類의 規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從來의 經典分類法은 어디까지나 佛典으로서 엄숙하고 따라서 이를 尊貴한다는 것만을 考慮에 넣고 한 排列法이지 圖書라는 面에서 볼 때는 沃口 合理的인 分類法이라고는 生覺할 수 없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는 後日 다시 紙面을 얻어 研究키로 하고 여기서는 單至 現代 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는 分類法에서 佛敎部分은 어떻게 分類安排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現代圖書分類表의 佛敎部門

現代圖書館에 있어서 使用되고 있는 諸分類表의 佛敎分類는 如何한 것인가에 對하여 그 概略을 살펴본다면 漢籍分類表로서 가장 充實하다고 볼수있는 “Harvard 大學 燕京學社에서 漢和圖書分類法, 1943年”의 佛典分類는 經律論으로 三大分하고 다시 經及經疏에서는 小乘經과 大乘經으로 크게 二區分하고 다시 小乘經은 阿舍部, 本緣部의 二部로 區分하고, 大乘經은 般若部, 法華部, 華嚴部, 寶積部, 大集部, 涅槃部, 經集部, 秘密部, 僞經의 9部로 분하였으며, 律及 律疏는 小乘律, 大乘律, 및 雜律의 三部로 분하였으며, 論及 論疏는 釋經部, 毗曇部, 中觀部, 瑜伽部, 秘密部, 論集部의 6部로 區分하고 있다. 그리

고 이와같은 分類法은 日本十進分類法, 朴奉石 編인 韓國十集分類法 및 千惠鳳氏의 D. D. C 展開表中의 宗敎分類에서도 거의 같은 方法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D. D. C의 佛敎分類는 294.3에서 北傳佛敎와 南傳佛敎의 二系列로 區分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佛敎에 關한 書籍을 많이 收藏하는 圖書館이나 큰圖書館에 있어서 는 이部門의 展開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1) 經律論의 本文

本文, 解釋, 註解, 國譯은 宗派에 關係치 말고 佛典아래 分類하라.

2) 寺院 및 佛敎美術品

國寶 또는 重要文化財로 指定된 寺院의 建物이나 또는 그에 所藏하는 佛像, 其他 工藝品 등의 美術的인 價値를 說明한 圖書는 美術史에 分類하라.

3) 寺院建築의 方法을 說明한 圖書는 726.9에 分類하라.

4) 釋迦 및 佛弟子

菩薩(文殊, 普賢, 觀音等) 如來에 關한 圖書는 釋迦 및 佛弟子와 같이 分類하라.

5) 佛敎와 文化와의 關係를 歷史적으로 敘述한 것은 佛敎史와 같이 分類하라.

6) 佛敎藝術에 關한 圖書는 藝術에 分類하라.

7) 小乘佛敎에 關한 圖書는 南方佛敎에 分類하고 大乘佛敎에 關한 圖書는 北方佛敎로서 分類하라.

8) 라마敎는 西藏佛敎와 같이 分類하라.

9) 차이 나敎는 佛敎에 類似한 敎義를 가진 印度의 一宗派이다. 294.4에 分類하라.

佛敎의 各宗派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東方의 佛敎傳來는 西域을 거쳐서 中國에 들어와 開花케

되어 있으며 隨, 唐의 時代에는 極히 興盛한 而서 多數의 經典이 翻譯됨과 아울러 그에 對한 理論의인 研究도 또한 活潑하게 進展되었다 따라서 各各 많은 宗派가 생겨 나게끔 되었다. 그 主되는 것은 俱舍, 成實, 天台, 三論, 法相, 律宗, 淨土, 禪宗, 華嚴 및 密教 등의 十宗派이니 우리나라의 十二宗派나 日本의 十四宗派도 이 十宗派에서 分派된 것이라고 한다.

1) 佛弟子와 佛敎諸宗派의 史傳

諸宗派 分立以前의 小乘各派의 傳記는 佛弟子와 같이 分類하라.

2) 各宗派의 敎義, 宗祖나 高僧의 傳記 宗典 및 語錄 등은 그 宗派아래 分類하라.

3) 各宗派의 宗祖 및 祖師의 傳記는 그 宗派의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294.5 印度敎

印度敎(Hinduism)는 印度國民의 宗敎로서 西紀前 10世紀쯤 부터 西紀前 5世紀에 걸쳐 베다(吠陀) 범서(梵書) 우마니사토(優婆尼沙土 Uvanisad) 따위 聖典에 依해서 組織된 以來 佛敎의 影響을 받아 5세기 부터 10세기에 걸쳐 復興하고 그 뒤 回敎, 예수敎가 들어오매 一時 衰退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러 改革運動이 일어나 다시 興盛했다. 呪物崇拜, 아니미즘 先祖崇拜, 偶像崇拜, 汎補論 哲學 따위의 여러 要素를 包含하고 있으며 많은 宗派로 갈라져 있다.

1) 瑜伽哲學은 印度哲學아래 分類하고 瑜伽의 行 卽 冥想修行法은 印度敎아래 分類하라.

猶太敎

1) 미쉬나, 겔마라는 탈무드와 같이 猶太敎아래 分類하라.

2) 이스라엘(palestine) 以外에 있어서

의 猶太人의 歷史는 325.2 移民아래 分類하라.

300 社會科學

社會科學은 自然科學과 더불어 經驗科學에 屬한다. 卽 自然科學은 自然現象을 研究對象으로 하는데 反하여 社會科學은 社會現象을 研究對象으로 한다. 卽 社會事象을 各其 다른 觀點에서 研究하는 政治學, 經濟學, 法律學, 社會學, 敎育學, 宗敎學 등의 諸科學이 모두 社會科學의 分野이다. 그러므로 社會科學은 社會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의 總括的인 任務를 가진다.

人間生活이 社會에 對한 關係를 다루는 學問으로서 그 綜合的인 著述은 社會科學아래 分類한다.

301 社會學

1) 集團生活의 過程 및 그 關係를 學問的으로 研究한 것은 社會學아래 分類하라

2) 集團을 形成하는 構成員으로서의 個人에 對한 精神 및 感情의 行動에 關한 研究는 社會心理現象아래 分類하라

3) 全人口의 科學的인 研究, 例를 들면 人口論 人口問題; 人口의 對策; 人口의 移動은 301.32 人口下에 分類하라.

4) 家族의 構成과 그 役割; 結婚; 家族關係의 一般的인 것은 301.42 家族下에 分類하고 特殊面에서의 家族은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

例, 家族의 慣習 392.3.

5) 社會運動, 卽 勞動運動, 青年運動 또한 特殊社會運動으로서 改革運動, 革命運動, 流行運動 등에 關한 圖書는 社會運動아래 分類하라 기타 特殊的인 改革運動에 關한 것은 그 主題下에 分類한다.

例, 奴隸解放運動은 326에 分類한다.

6) 團體의 組織 및 그 活動, 모임, 暴徒, 徒黨, 暴動 等에 關한 圖書는 301.58 초기집 단구성 아래 分類하라 그러나 犯罪學 및 犯者로서의 強盜는 364.363 犯罪學 아래 分類한 暴動과 革命에 關한 圖書는 323.2 政治鬭爭 아래, 分類하라.

7) 集會, 結社와 그 組織과 機能에 關한 圖書는 301.1583 公衆會合 아래 分類하라.

그러나 社交俱樂部는 367에 分類한다.

8) 사람의 價値, 傳統, 技法, 理想, 制度 等의 價値 기타 人間社會를 發展에 必要한 行動全體를 다룬 圖書는 301.02 文化 아래 分類한다.

9) 文明과 文化의 歷史는 歷史 아래 分類한다.

例, 世界文化史; 901.9에

10) 特殊主題 또는 特定國家의 文化는 그 主題 또는 그 國家의 歷史 아래 分類하라.

例, 文化人類學은 572 人類學 아래.

310 統計學

統計學의 定義는 一定치 않으나 一般의 으로 社會科學의 方法學으로 알려져 있다 即 實證科學으로서의 統計學은 社會現象의 集團의 觀察法에 依한 一種의 社會科學이라 規定되며 이 集團의 觀察의 對象이 되는 社會諸現象은 이 境遇 統計現象이라고 불리운다. 社會科學의 方法學으로서의 統計學은 이와 같은 統計現象을 處理하는 諸技法을 研究하는 學問으로서 社會科學의 補助科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D.C.에서도 社會科學中에서 統計學을 第一 처음에 論점이 이닌가 生覺된다.

1) 量的 및 數字的인 데이터를 얻는데 있어서 計數를 確實히 하기 위한 分析 및 計算法에 關하여 研究한 것은 統計學 아래 分類하라.

但 數理統計學은 519.9에 分類하라.

2) 人口統計 以外의 特殊主題에 對한 統計는 그 主題 아래 分類하라.

例: 教育統計는 370.83

鐵道輸送統計는 385.1

(筆者 서울大學校司書官)

營業品目

各種카—드類, 各種 圖書帳簿類, 各種書架, 閱覽대—물, 同椅子類, 司書冊床, 카—드북쓰, 雜誌架, 책고지, 其他圖書館用品製造販賣

標準規格의 圖書館用品專門製造販賣

新築工業社

서울特別市麻浦區孔德洞一〇五番地

電話 ④ 0206